



단팥빵 그리운 날엔  
국내 베이커리 1호

**이성당**





# LEESUNGDANG BAKERY

오래된 것에서는 편안함이 느껴진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건물과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디자인,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단팥빵 같은 간식을 보면 아이처럼 쉽게 마음이 열린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 군산에 자리 잡은 이성당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사랑받는다. 추억의 맛과 향기를 찾으러 군산으로 향했다.

글·사진 김효정

## 80년의 기억을 굽는 빵집

군산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바다와 철길이 도시를 감싸고, 근대 건물이 곳곳에 남아 있어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으로 여행객을 맞는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이 도시에서는 어쩐지 조금처럼 나아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도 좋을 군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빵집이 있다. 이성당은 1945년 개업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를 모두 지나왔다. 8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며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하고, 추억을 쌓아온 공간이다. 이성당 이전에는 1920년 일본인이 운영하던 화과자점 '이즈모야'가 있었다. 달지 않고 묵직한 팔소를 가득 넣은 단팥빵과 아삭한 식감의 채소와 담백한 고기가 어우러진 야채빵이 대표 메뉴다. 주말이면 단팥빵과 야채빵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이성당 본점에 몰려들어 100미터 이상 줄을 서는 진풍경을 이루기도 한다.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기본에 충실한 맛으로 오랜 세월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1940년대 중반 단팥빵이 먼저 출시되고, 1980년대 중반 야채빵이 나왔다. 단팥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연구한 이성당은 2006년부터 단팥빵의 밀가루 함량을 줄이고, 쌀가루를 이용해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빵을 먹을 때 쫄깃한 식감이 느껴진다. 이성당 추천 베스트 메뉴로는 슈크림빵, 메론빵, 소보로빵, 카레고로케, 생크림당금빵이 있다. 이 밖에도 빵 종류는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성당 본점은 본관과 신관이 나란히 자리한다. 대부분의 빵은 본관에서 판매하고 신관은 일부 빵과 과자, 선물 세트 등을 판매한다. 본관보다 신관은 한산한 편이다. 신관 2층에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다.

### 시대를 품은 신흥동 일본식 가옥

이성당에서 도보로 10분이면 신흥동 일본식 가옥(히로쓰 가옥)을 볼 수 있다. 군산 근대사의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인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대규모의 주택으로 1920년대에 일본인 히로쓰 게이사브로가 지었다. 2005년 6월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했다. 이곳은 건축물의 구조와 내·외부의 공간구성, 장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바람의 파이터>, <장군의 아들> 등 많은 영화가 촬영될 정도로 감각적인 공간이다. 해설사와 함께 건물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대를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총 2층의 목조식 주택으로 2층 본채 옆에 단층의 객실이 비스듬하게 붙어 있고, 두 건물 사이에는 잘 가꿔진 일본식 정원이 있다.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두 칸이 있는데 벽장과 장식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복도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신흥동 일본식 가옥 근처에 초원사진관도 들러 보기를 바란다. 한석규와 심은하가 주연을 맡았던 <8월의 크리스마스>는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영화로, 두 남녀의 슬프고 잔잔한 사랑 이야기가 오랜 여운을 남긴다.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을 위해 제작진은 전국의 사진관을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군산의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카페 창밖으로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차고를 발견했다. 제작진은 차고를 사진관으로 개조해 '초원사진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화를 찍었다. 초원사진관이라는 이름은 한석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사진관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관 옆으로는 주차요원 심은하가 타고 다녔던 작은 차가 세워져 영화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든다.



**info.****이성당**<https://leesungdang1945.com>**영업시간**

일~목 : 08:00~21:30

금~토 : 08:00~22:00

**휴무일**

1, 3번째 월요일(변동 가능)

**문의**

063-445-2772

**주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77

**기차가 지나던 풍경, 경암동 철길마을**

경암동 철길마을은 군산에서는 꽤 인기 명소다. 녹슨 철길을 사이에 두고 판잣집이 양쪽으로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철도 위를 건다 보면, 독특한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게 된다. 부모님 시절에나 입었던 교복을 빌려 입고 레트로 감성에 빠지고, 불량 식품이나 소시지를 연탄불에 구워 먹으며 8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경암동 일대는 원래 바다였는데,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경암동 철길마을이 조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곳을 매립해 방직공장을 지었다. 해방 후에는 황무지 같은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944년 4월에 철길이 놓였는데, 신문 용지 제조업체인 페이퍼코리아의 생산품과 원료를 실어 나르기 위함이었다. 이 철길은 2.5km로, 페이퍼코리아 공장과 군산역을 잇는다. 여기서 1.1km는 철길마을 사이를 통과하는 구간이다. 철길과 판잣집은 놀라울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다. 기차가 들어오면 아이들은 집 안으로 피하고, 상인들은 잠시 물건을 치웠다. 기차가 지나갈 때면 소음으로 괴로웠고, 집은 곧 무너질 듯이 흔들렸다고 한다. 창문 밖으로 걸어 놓은 빨래나 화분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쁘게 모두 집 안으로 들여다 놔야 했다. 위험하지만, 익숙했던 일상이었다. 이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아 녹슬어버린 철길이 애잔해 보인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사가 그대로 담겨, 군산다운 풍경을 그려낸다. 🍷